

종합

당선자 맞이하는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첫날 표정

市 “줄대려 말고 업무 충실하라”에 초긴장
道 기존사업 점검 등 차분...시책발굴 주력

내달 1일 취임 도교육감도 인수인계 착수

강운대 광주시장 당선자가 3일 광주시의 업무 보고를 뒤로 미룬 채 첫 일정으로 광주시 시무 양동시장을 찾았다. 업무의 인수인계보다는 자신을 선택해 준 시민들을 찾아 앞으로의 공약 실천을 다짐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둔 것이다.
광 당선자는 이날로 예정됐던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실·국장의 축하방문 및 첫 업무 보고에 대해 “공무원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당선자 주변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일정을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일부터 예정된 각 실·국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보고·주문 방식이 아닌 공무원과 강 당선자 및 인수팀의 토론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을 통해 과거의 성과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인계인수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강 당선자와 인수팀의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되자 광주시 간부와 직원들은 축하를 굳두세우며 요구 자료 및 토론 등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걸렸...

광주시 관계자는 “강 당선자 쪽에서 취임 전까지 모든 일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이에 따른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인수인계 과정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강도가 세, 각 실·과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 측에서는 광주시가 송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지원단 내 총괄지원·인계인수·홍보대행·행정지원 등 4개 팀을 구성하자, 유동국 전략기획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그리고 정광훈 전 남부구청장을 정책 담당자, 김병래 보좌관은 일정담당자로 선정해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또 인수팀 사무실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빌딩을 두고 저를질하고 있으며, 인수팀 규모는 최대 30~5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수팀 내에 행정·문화·경제 등 각 분과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졌다.
강 당선자의 ‘준비된 행보’로 인해 일각에서는 취임 초기 강 당선자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인사·정책·사업 등 시정 전 부문에서 강 당선자가 민선 3·4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당선자와 함께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도 3일부터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3선에 성공해 복귀하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맞는 전남도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민주당 경선에서 박지사가 후보로 결정된 순간부터 사실상 전남지사 3선을 예약해 놓은데다, 신중하고 차분한 박지사의 스타일을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박 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는 7일에 맞춰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민선 5기에 맞춰 공약 사항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박 지사가 복귀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민선 5기를 앞두고 기존의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시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당선증 교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장·교육감·비례대표 시의원 등 11명에게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했다. 전주연(민주노동당 광역의회 비례대표), 장휘국 교육감, 강운대 시장, 정현애(민주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병문(민주 광역의회 비례대표) 등이 당선증을 들어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재선·3선 단체장들 대부분 업무 복귀

안순일 시교육감은 11월 7일까지 직무수행

광주·전남지역 재선·3선에 성공한 단체장 중 대부분이 3일부터 직무에 복귀했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중 유태명 동구청장과 전주인 서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이 각각 3선과 재선 3선에 성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단체장이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돼, 부지사나 부군수 등 부 단체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직무를 대신하고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하게 돼 있다.
광주의 유태명 동구청장·송광운 북구청장은 3일 오후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3일 당선증 수령과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4일 해남교도소 개청식과 언론사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7일자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3선에 성공한 서삼석 무안군수는 3일 오전 10시에 군청에 출근해 직원들과 상례례를 가진 뒤 본격 실·과장 및 읍·면장과 단장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김일태 영암군수도 지난달 14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20여일만인 3일 오전부터 군수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또 옥중출마해 당선된 전남순화순군수도 이날 오전 월례회의를 시작으로 군정 수행에 들어갔다.
이성용 광양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김종식 완도군수 등 3선 당선자와 무소속으로 재선한 박우량 신안군수 등도 3일자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선거에 패배했지만 임기만료일은 오는 11월 7일까지 교육감으로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김종두



꼭 이렇게 써서 보여줘야 아냐?!

‘광주·대구 R&D특구’ 지정 대비

市, 지경부·대구시·LH공사 협약 체결

광주시가 R&D(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대비해 지식경제부·대구시·대한토지주택(LH)공사와 ‘광주·대구 R&D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4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특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간 간 협의를 전담하고, 광주시와 대구시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재원(각 10억원 규모)을 부담하며, LH공사는 ‘광주·대구 R&D특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 분담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LH공사가 조만간 특구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

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특구 육성개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확정되는 특구 개발계획은 토지이용 계획·기반시설 계획·교통·환경·공인·복지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지식경제부·대구시가 내년 특구사업을 위해 2011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자체 선심성 세금 감면 ‘제동’

행안부, 교부세 보전 안해... 공공사업 축소 불이익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민들의 인기를 의식해 무턱대고 지방세를 낮춰 갔다가는 세수 부족으로 공공사업 축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3일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성, 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를 줄였을 때 생기는 예산 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면조례 허가제는 지자체가 조례

를 고쳐 지방세를 깎아주려 할 때 중 앙정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폐지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도입됐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노려 마구잡이로 조례를 바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발みが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승용차 요율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한 경우 등에는 교부세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액의 80%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되는데 작년에는 지자체가 954억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정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깎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감세를 하는 지자체들은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는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제10 민사부
운임신용협동조합 회계담당 제외기간공고
사 건 : 2003하합14 파산선고
제 목 : 운임신용협동조합
판사 : 윤인수
판사 : 김희정
판사 : 이재욱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에 관한 공고
(주)금강파워텍(“갑”)과 (주)금강인텔(“을”)은 2010년 06월 01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그 영업의 일부인 전기장시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고 분할되는 부문의 “갑”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따른 “갑”의 주주명부의 정지와 “갑”과 “을”의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있는 이해관계인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갑” 주 소 : 경기 평택시 평택읍 남면리 10-14
(주)금강파워텍
대표이사 : 박 영 우
“을” 주 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13
대리사 명 : (주)금강인텔
대표이사 : 노 종 균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제10 민사부
사건번호 : 2010년타 439
사 망 자 : 김종택 (500207-1552213)
최후주소 : 광주 남구 봉선동 17-2
등 록 기 준 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현리 32
위 망 김종택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29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6월 4일
공 고 인 : 김효녀
•항정승인수리원 : 2010년 5월 25일
•공고기간 : 2010.06.04 ~ 2010.08.03
•신고처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 하나주공아파트 101-907 김효녀 (018-611-3833)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제10 민사부
사건번호 : 2010년타 724
사 망 자 : 임영이 (510805-2559811)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신항동 925
등 록 기 준 지 : 광주 광산구 신항동 925
위 망 임영이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29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6월 4일
공 고 인 : 최봉근, 최요진, 최다미, 최광익
•항정승인수리원 : 2010년 5월 25일
•공고기간 : 2010.06.04 ~ 2010.08.03
•신고처 : 광주 광산구 신항동 925 최광익 (010-4702-0897)

전남발전연구원 공개초빙
전남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원장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분
1.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분
2.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연구원 경력이 있는 분,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분
4.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상용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의 상근연구원 경력이 있는 분,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분
5.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업의 상근연구원 경력으로서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기 : 3년
■ 지원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및 양식 : 서류는 연구원 홈페이지(www.jerri.kr)를 참조하시고,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0. 6. 4 ~ 2010. 6. 25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리리 2074 전남개발발전 13층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
■ 기 타
○ 서류는 접수기간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까지 접수하며,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요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061-260-3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6. 4
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

토지급매
“군산 배후도시 급부상 투자 최적지”
회현면 3,772㎡ 매매가 1㎡당 ₩82,000
• 2차선 도로 접함
• 개인사정으로 급히 매각
• 관리지역
• 바다인접
• 새만금 사업중 한곳으로 꼽히는 군산지역은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함께 땅값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며, 이중에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곳은 경제 자유구역 군산시 배후도시로 지정된 옥산읍 일대와 인근 회현면입니다.
회현면은 배후도시 개발과 함께 배후도시 토지보상으로 인한 대토용지나 신규투자처 물색에나서는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지가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거래 010 - 6821 - 5123

부동산 매각공고
1. 소재지
- 광주중앙교회 금남로교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79-1,
충장로4가 7-3, 8, 14, 25, 27, 28)
2. 면 적
- 2448.4(㎡)
3.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조건
- 교회와 별도 협의
4. 연락처
- 062-717-9100(교회)
HP: 010-4603-1229(행정목사)
대한예수교 광 주 중 앙 교 회